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2025년 10월 5일

[10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 자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얼음 깨기

추석을 보내며

교회행사

사랑하는 모든 목장원 여러분 행복한 연휴 보내셨었나요?

추석(秋夕)처럼 그리스도의 빛으로 행복했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1. 연휴 기간, 어떻게 보내셨었는지 함께 나누어 봅니다.

2. 지난 한 주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10월

6-9일	추석 연휴
12-15일	가을 사경회
18일	더비기닝 선교학교 개강
19일	사역박람회 (3주간)
22일	필그림/ 벤투버한인함창단 찬양예배
23일/25일	1차 세례 교육
25일	신중년 야유회
30일/11월1일	2차 세례교육

11월

1일	문답식/굿월센터 야유회
2일	세례식
9일	성찬식/더가족세미나 개강
16일	추수감사주일
19일	마하나임/트리니티 중창단
29일	더비기닝 선교학교 수료식

경배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X2)

뜻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X2)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소식

1. 더말씀으로 가을사경회

가을맞이 더말씀으로 사경회를 오는 10월 12일(주일)~15일(수)까지 주일 낮 예배와 매일 밤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김형국 목사(하나복 대표)가 “확립된 정체성, 선명한 인생살이”라는 주제로 베드로전서를 강해합니다.

2. 추석 명절예배 안내

3일(금) 향기로운 금요일과 8일(수) 수요일예배는 개인 기도로, 명절 기간 6일(월)~9일(목)까지 아침기도회도 개인기도로 대체합니다.

선교

[오경섭 선교사]

캄보디아

- 1800만 캄보디아 영혼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 스롤란 교회 사역, 도시 빈민 사역, 깎쟁이 가정 교회 사역에서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후 진료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 캄보디아 추석 포춘번 전후로 사람들이 절에 방문하는 우상숭배가 심해지는 이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소서
- 더온누리교회 캄보디아팀과 함께 사역했던 몬돌끼리 지역에 뿌려진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한문장 큰 울림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존 파이퍼 -

[역대하 18:13]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역대하 17-20장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통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대하는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 초점을 두어 기록되었고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7장]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고 각 지역에서 율법을 가르침.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강대하게 하심
[18장] 여호사밧과 아합이 혼인 관계를 맺은 후, 길르앗 라못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도망
[19장]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하고, 여호사밧은 다시 남유다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재판 체제 개혁
[20장]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였고, 여호사밧과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

오늘은 18장 말씀을 통해, 악한 아합 앞에서 선지자 미가야와 지도자 여호사밧의 대비되는 태도를 살펴보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1_ 여호사밧, 흔들리다 (1~11절)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축복하셨지만,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는 불안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달라(아합과 이세벨의 딸)가 여호람(여호사밧의 아들)과 혼인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남유다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여호사밧 사망 후, 이달라는 유다 왕위 찬탈을 시도하고 왕가의 후계자들을 거침없이 학살합니다. 다윗의 길로 가던 여호사밧이 이처럼 위기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역대하18:1]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 대답을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귀와 영광이 커지고,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지킬 것도 많아지게 되었지요. 하나님만 따르던 여호사밧이었지만 보이는 유혹과 버거운 환경 속에 직면했을 때, 흔들리며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나눔] 오늘 내가 흔들리고 있는 삶의 어려움, 세상의 유혹은 무엇이 있나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2_미가야, 굳건한 말씀의 사람 (12~27절)

미가야는 지도자가 원하는 말을 하는 아침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나팔수로서의 삶에 충실하였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였을 뿐이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아합은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미가야를 미워하였습니다.(7절) 전쟁에 나서야 하는 중요한 결정을 앞둔 상황 속에, 400명의 선지자들은 나아와 이구동성으로 승리를 장담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곧 아합의 죽음과 전쟁의 패배를 선포합니다.(16절) 미가야는 어떻게 이와 같이 굳건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역대하18:13]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의 환상(18~22절)을 미가야에게 먼저 보여 주십니다. 미가야는 400명의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보며 이 환상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인한 것이지요. 죽음도 옥에 갇히는 것도 미가야의 굳건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질문] 미가야처럼, 내 삶에 붙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요?

3_매순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사밧을 생각해보면, 사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버거운 세상 삶과 부귀와 영광의 유혹 앞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과 얽혀진 관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호사밧처럼 흔들리기도 하며,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고 함께하십니다. 겸손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확신과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감,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순간 성령님께 자산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눔] 성령님을 구하며, 견뎌내야 할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